

PCUSA 총회 후폭풍 “교단 탈퇴” 가속화 되나

“보수주의자 모두 탈퇴하면 교단 미래는?” 반대 입장도 강해

미국 최대의 장로교단이자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장로교(PCUSA)가 3년 전 동성애자의 성직 임명을 허용한 이후, 이번 221차 총회에서 성직자들의 동성결혼 주례를 허가하고 교단규례집에 명시된 결혼의 정의까지 ‘한 남성과 한 여성’(a man and a woman)의 결합에서 ‘두 사람, 전통적으로는 한 남성과 한 여성’(between two people, traditionally a man and a woman)의 결합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동성애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을 성직자로 임명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매년 6만 명 이상의 교인 감소를 겪었던 PCUSA에 있어서 이번 총회의 파장은 결코 적지 않다. 특히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개정안은 기독교의 전통적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이기에 이번 총회 이후 산하 교회들의 교단 탈퇴는 더욱 가속화 될 수도 있다.

“PCUSA는 침몰 중” 탈퇴 움직임

이런 상황에서 PCUSA 내의 교회

들 가운데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교회들의 ‘액션’은 대체로 양분된다. 교단을 떠나겠다는 입장, 혹은 교단에 계속 잔류하며 교단의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PCUSA 내의 보수세력인 장로교인회(Fellowship of Presbyterians)는 2012년 복음주의언약장로회(ECO,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라는 별도의 교단을 출범시켰고 현재 100여 교회 이상이 여기에 가입해 있는데 절대 다수가 PCUSA를 탈퇴한 교회로 추정된다.

2006년만 해도 교인 226만 명이었던 PCUSA는 동성결혼이 총회에서 통과된 2010년에 201만 명으로 감소하고 이 법이 노회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발효된 2011년에는 195만 명으로 감소했다. 2012년 184만 명이던 교회는 2013년에는 176만 명으로 급감했다. 교회 수도 2012년 10,262개였지만 1년이 지난 2013년 10,038개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줄어든 224개 교회 중에, 148개는 다른 교단으로 소속을 옮겼으며 나머지는 문을 닫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목할 만한 사실

은 2011년 21개, 2012년 110개 그리고 2013년에는 148개로 3년 연속 타 교단으로 옮긴 교회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성결혼 찬성하거나 희망의 끈 부여잡아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PCUSA 내 교회들은 자신들의 소속을 지키고 있다. 이중 진보적인 교회들은 당연히 교단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총회에서 동성결혼 주례안이 371대 238로, 결혼 정의 변경안이 429대 175로 통과된 사실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 내에서 동성결혼이 여론의 대세로 굳어져 가는 데에도 교단을 탈퇴하지 않는 보수 교회들의 입장은 ‘희망은 아직 있다’는 것이다.

먼저 동성결혼 주례에 관해서는 총회가 “목사와 당회의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결혼 집례를 허가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번 총회의 결정을 들여다 보면 이런 판단은 사실이다. <2면에 계속>



미주장신대-호남신대 MOU 체결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지난 1일 한국의 호남신학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양교는 이번 MOU로 인해 향후 5년간, 학생 및 교직원 교류 및 공동 연구, 학술정보 교환, 학술 활동 등을 하게 된다. 미주장신대는 이어 영남신학대학교와도 6일 자매결연 및 MOU를 맺었다. 광주에 위치한 호남신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직영신학교이며 영남신대는 경북 경산에 위치해 있으며 동일한 교단에 속해 있다. 사진 좌측은 이상명 미주장신대 총장, 우측은 노영상 호남신대 총장.

한인 2세 중심으로 광복 70주년 준비하는 기도운동

Adopt a Day 815: 한국 역사 알리고 남북 분단 문제 해결 위해

한인 2세를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운동이 시작된다. 이른바 Adopt a Day 815 Dedication Worship이다. 어떤 정치색이나 주체 단체 없이 순수하게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이 운동은 한인 1세가 아닌, 차세대들이 주도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는다.

2015년은 한국이 광복을 맞이한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그러나 이날은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Adopt a Day 815 운동은 오는 2014년 8월 15일 즉, 70주년이 되기 딱 1년 전인 날 기도 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이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예

레미아의 예언 중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부르짖은 장면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독립과 역사에 관해 미주 한인교회 차세대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특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북한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기도한다.

오는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첫 기도 모임이 LA에 위치한 베벌리 힐튼호텔(9876 Wilshire Blvd. Beverly Hills, CA 90210)에서 열린다. 참석은 무료이지만 좌석에 제한이 있기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풀러신학교의 박기호 교수, 동양선교교회의 박형은

목사, 바이올리대학교의 메리 박 교수, 탈북신학교의 벤 신 교수 등이 메시지를 전한다. 이 강사들 외에도 골든게이트신학교의 조 김 교수, 프린스턴신학교의 보 리 교수 등 한인 신학교수들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골든게이트신학교의 제프 오지 총장과 리모이 게이니 디렉터, 남침례회 국제선교부의 제리 랜킨스 명예총재, 풀러신학교의 폴 피어슨 교수 등 미국 교계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한인 1세 중에는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은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 adoptaday815@gmail.com
 www.adoptaday.com

이윤형 기자

OC목사회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매달 회개 기도회 열고 대부흥 열망

오렌지카운티한인목사회(회장 김영찬 목사)는 매달 한 차례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주제 아래 영적 각성 기도회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고 있다. 제3차 모임은 지난 7월 16일 열렸고 이제 제4차 모임을 8월 20일 오전 10시에 앞두고 있다.

회장 김영찬 목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세속화 되었는지 회개하며 이에 따른 영적 각성이 절실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부흥이 왜 지연되는가?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면서 “요즘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회자 각성운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우 고무적인 운동이며 목회자들

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기도회는 모든 목회자에게 개방돼 있다. 김영찬 목사는 “이 목회자 기도 운동이 LA 전체와 전 미국, 그리고 전 세계로 불길이 옮겨 붙어 오늘의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문의 : 562-833-5520

김준형 기자



김영찬 회장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박사] 과정 개설!!

박사과정

선교학 박사(D.Miss)
 유학생 1-20 발급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MA ICS)

학사과정

신학사(BA)

가을학기 원서접수 마감 : 2014년 8월 30일

- 우수한 교수진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 전과정 유학생 SEVIS I-20발급
- 미 연방정부 장학금 및 그랜트 지원
- 미 국방부 학비 지원(TA)
- 미 군목 장교 지원
- GMU 학교 장학금 수여

온라인 원서 접수
www.gm.edu

- 온라인 과정 : 수시모집
- English Track(전과정을 영어로 강의)
- LA Extension Class: 주님의 영광교회內 (Tel: 213-479-4500)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미션대학교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ATS준회원

PCUSA 동성결혼 주례 및 결혼 정의 변경 결정 후 교회들의 대책

교단 탈퇴 어려운 이유는 재산 때문? “꼭 그렇지 않아”

노회별로 탈퇴 방법 이미 마련, 이민교회 상황에서 목회자-성도 협력이 가장 중요



PCUSA 소속 교회 중 워싱턴DC에 위치한 필그림교회(Church of the Pilgrims)가 동성애자들을 환영한다는 배너를 걸고 있다.

PCUSA의 교회 재산에 대한 주요 규정

- G-4.0203 <신택된 교회 재산>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에 의해서 혹은 그들을 위하여 소유된 모든 재산은 그 법적 명의가 법인에게 있든지 재단이사(들)나 비법인체에 있든지 간에, 또 그 재산이 개체교회나 상위 공의회 프로그램에 사용되든지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재산은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이익을 위해 신탁 보관된다.
- G-4.0204 <헌법에 어긋나는 재산의 사용>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거나 그 교회를 위해 보유한 재산은 그 교회가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로서 헌법대로 그 재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노회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소유, 사용, 적용, 명의 이전, 매각되어야 한다.
- G-4.0205 <해소되었거나 없어진 교회의 재산>
교회의 재산은 노회가 지시, 제한, 지명하는 용도, 목적, 신탁을 위해 보유, 사용, 적용되어야 한다. 아니면 그런 재산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노회가 지시하는 대로 매각되거나 처분될 수 있다.

<1면으로부터 계속> 총회는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가된 주에서 목회자는 동성결혼을 주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지 “무조건 동성결혼을 주례해야 한다”고 명령하진 않았다. 즉, 동성결혼이 불법인 주에서는 여전히 주례를 할 수 없으며, 합법인 주에서조차도 목사나 당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 유권해석에 근거해 “무조건 안 돼”에서 “자유가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진 교회들은 “교단이 뭐라 해도 우리만 제대로 거부하면 된다”고 믿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결혼의 정의 변경 즉 “두 사람 간의 결합”이란 문구 뒤에, “전통적으로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라는 문구를 넣었다는 사실에 다소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완전히 패배하진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영어 표현으로 “between two people, traditionally a man and a woman”이란 말 자체가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인데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다”고 읽히며 “한 남자 한 여자”보다는 “두 사람”에 더욱 비중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결혼의 정의 변경은 1년 내에 170여 노회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야만 정식으로 통과되고 발효된다. 현재까지 각 노회의 반발이 거세거나 혹은 노회가 찬성하더라도 그 노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대표들의 입장이 워낙 극과 극이기에 이 결혼의 정의 변경이 올해 통과되리란 보장은 없다. 교단에 잔류하려는 보수교회들은 반드시 이를 저지하겠다고 버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 십수년에 걸쳐 동성애자 성직 허용을 이뤄낸 PCUSA 내의 세력을 생각할 때, 올해 안되면 다음 총회에서, 또 다음 총회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교단 탈퇴 못하는 이유? 재산 때문?

그러나 교단 내부에서도 교단 탈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산이라는 점이 정설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우리는 동성결혼 주례를 안 하겠다’, ‘반드시 결혼정의를 지켜내겠다’는 말은 성도들이 듣기 좋은 포장일 뿐이고 사실은 교단에 남아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힐난하기도 한다. 바로 재산이다. 더 쉬운 말로 돈이다.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 성도들이 현금해서 세운 교회 건물과 토지, 교회 내 가구나 집기들은 당연히 교회나 성도들의 소유일 것 같

지만 PCUSA 교단의 법은 교회 재산이 교인들의 것이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다.

<위의 자료 참고>

교단 헌법의 규례서(Book of Order)에 따르면, 개교회의 재산은 교단에 신탁돼 있으며 노회가 이를 처분한 권한을 지닌다. 즉, 교회가 교단을 임의로 탈퇴할 경우, 자신들의 현금으로 마련한 불펜 한 자루도 갖고 나올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는 재산 전부를 잃을 각오도 해야 한다. PCUSA를 탈퇴하는 교회들이 대거 가입하고 있는 ECO는 “미국장로교를 떠나기 전에 고려할 점들”(Things to Consider Before Leaving the PCUSA)이란 공문에서 첫 번째로 “교회가 PCUSA를 탈퇴해야 한다고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탈퇴는 심각하고 매우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들고 있다. 만약 정말 교단 탈퇴가 그 정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교단을 탈퇴하란 암시적 메시지다.

포기보다 포기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

그렇다면, 탈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가? 정말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실제로 포기해야 하는 것보다는 포기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라는 것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들의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회다. 실제로 교회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총회로 하느냐가 문제다. 다행히도 2008년 이래로 다수의 노회들이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를 위해 이 문제를 다루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른바 “은혜로운 분리 규정”(Policy for Gracious Separation) 내지는 “원만한 이전”(Peaceful dismissal) 등에 대한 조항이다. 이는 노회마다 다르다. 이 규정에 따르면, PCUSA는 결코 모든 재산을 압수하고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교단의 혼란을 방지하면서 교단과 개 교회가 각자의 뜻에 따라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을 찾고 있다. 노회들은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의 재산 총액과 각 교회가 매년 선교 목적으로 내는 상회비에 근거해 이른바 탈퇴 비용을 산출하는 식으로 합의한다.

2014년 초 이 교단 내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성도 4천 명 규모의 멘로파크장로교회는 889만 달러를 노

회에 지불하고 교회 재산을 전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오클라호마에 위치한 에드몬드제일장로교회는 51만 달러를 노회에 지불하게 됐다. 적지는 않은 금액이다. 미네소타에 위치한 호프장로교회는 무려 120만 달러다. 그러나 교단의 재산 신탁 조항을 포기하고 교회의 재산에 개입하지 않는 미시시피노회나 샬롯노회 소속의 교회들은 이런 기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원만한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노회마다 조항이 다르지만, 대체로 해당 교회 성도 80%-90% 이상의 절대 다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필수 과정인 ‘노회와의 공식적인 의사 조율’ 후, 공동의회를 열고 투표하는 등 정면 돌파가 없을 경우, 노회는 교회가 분열됐다고 판단하고 교회 재산을 얼마든지 압류해 교단에 남길 원하는 교인들에게 줄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남가주의 많은 PCUSA 소속 한인교회들이 분열되며 노회와 재산 다툼을 벌였지만 노회를 이긴 전례는 없다. 교인 절대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세상 법정은 대부분 노회의 손을 들어 준다. 따라서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는 반드시 노회가 마련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2013년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HYUNDAI
PUEBL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2014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학사 (B.A.), 교역학석사 (M.Div.) 과정

“교육의 질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4년 8월 25일

- 온라인 원격강의 개설
- M.Div. 과정 나성영락교회 강의 개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산타페언어-문화교육원 ESL 과정

“산타페언어-문화원 수업은 공부보다 실력을 쌓게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4년 9월 8일

- 월별 단과반 수시등록가능
- 맞춤형 수업진행 (1:1 수업, 발음교정, Speech, 영작문 등)
- 2015년 봄학기 개강 : 1월 5일 ~ 4월 17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총장 이상명 박사 / 이사장 김인식 목사

- 입학 및 등록 : 본교 홈페이지 www.ptsa.edu '입학정보실' 참조

-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300 office@ptsa.edu 한국 010-6612-1165 (담당 : 박정환 목사)

- ESL 문의 및 상담 : 강우중 교수 (wj kang@ptsa.edu)

1-20 발행

정회원 ats 준회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 office@ptsa.edu

※ Office 임대합니다. (1,300, 900, 800 sqft)

교단 탈퇴만이 대안 vs. 남아서 교단 개혁해야

텍사스 최대의 장로교회인 하이랜드 파크장로교회는 노회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탈퇴를 시도해 현재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치르고 있다.

한인교회들은 무풍지대? 불안감 확산

한인교회라고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절대 다수의 한인교회들이 보수적 한인들의 정서상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현상은, 한인교회들이 동성결혼에 대해 거대한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교단 탈퇴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 준 은인의 교단이며 한인교회들이 PCUSA의 갱신을 위해 준비했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해체되었지만 LA 지역 한인교회들이 속해 있던 한미노회의 노회장을 역임했던 강일준 목사는 교단 잔류를 주장하는 인물 중 하나다. 강 목사는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의 목회적 상황과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성급하게 생각해서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결국 (동성에 문제는) 표 대결로 간다. 보수주의자들이 이럴 때일수록 교단에 남아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의견을 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교단이 완전히 친동성애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동성애를 허가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동성애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란 그의 말에 "동성결혼도 십수년 만에 허가되지 않았나? 결혼 정의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가"라고 묻자 그는 "보수적 교회들이 교단을 떠날수록 그 기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교단 관계자는 "교단 내 한인교회 모두가 고민 중인 진퇴양난의 문제다. 동성애 문제에 대한 신학적 차

이로 인해 극소수의 교회들이 탈퇴를 고심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슈가 생길 때마다 교단을 탈퇴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법 중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작정 시민권을 포기할 것인가? 교단 탈퇴 문제는 교단 밖에서 보듯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교단 밖의 비난에 관해 항변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회들 내에 불안감이 팽배한 증거가 관측된다. 실제로 보수적인 한인들의 정서 속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교단 내에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을 반영하듯, 이번 221차 총회에서 동성결혼 집행과 결혼 정의 변경에 관한 조항이 통과되자마자 이 교단 산하 한인교회 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냈다.

PCUSA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의 유승원 총회장은 총회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결정이 나고 단 하루만인 6월 20일에 반대 서신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교단의 결정을 설명한 후, "결혼의 성립과 주례의 재량과 권한은 전적으로 당회와의 협의 아래 가르치고 집행하는 목사에게 있다고 했기에 총회의 유권해석은 우리의 양심과 그에 따른 실행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한다"고 했다. 교단의 결정이 산하 교회들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표현이다. 6월 24일부터 열린 NCKPC 총회에서 유 총회장의 뒤를 이어 당선된 이영길 총회장도 "교단 산하 한인교회는 성서적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절대적으로 동성애 결혼과 건물 사용에 대해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교단 소속 남가주하와이대회의 한인교회협의회(KPC)도 7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목사와 당회는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긋난다고 확신할

때 거부할 수 있다. 남가주하와이대회 소속 한인교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도 시행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인교회들 교단 탈퇴 러시 시작되나

그러나 교단에 잔류를 결정한 이들의 뜻대로 산하 교회들이 움직이지는 않는 듯 하다. 샬롯노회에 속한 샬롯제일장로교회는 노회와의 조율 후, 공동의회를 개최했고 208명 성도 중 99.5%의 찬성으로 교단 탈퇴가 결정됐다. 샬롯노회는 개교회의 재산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이 교회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교회에 그대로 귀속됐다. 이 교회는 샬롯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로 자체 성전에 17에이커 부지를 소유해 교단 내에서도 꽤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었다.

이 교회 최유찬 담임목사는 "동성결혼 문제를 우려하는 성도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저는 동성결혼을 거부하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것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부담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1년 최 목사 부임 이후, 성장 중인 이 교회는 새로 오는 성도들이 교단의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는 등 목회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제일장로교회는 2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교회 내에서 심각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거친 후 드디어 노회에 교단 탈퇴를 신청했다. 최 목사는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 문제로 인해 두 번, 세 번 더 어려움을 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교회는 보수적인 스코틀랜드 청교도 교단인 연합개혁장로교회(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로 이명한다.

달라스의 베다니장로교회도 2014년 4월 99.3%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하기로 했고 교회가 속해 있던 그레이스노회에 선교부담금 23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 이 교회 박준걸 담임목사는 "차세대들에게 우리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 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구나'란 점을 확실하게 알고 이 시대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 교회 역시 교단의 동성결혼 결정 이후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

그는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면 모든 것을 빼앗길 것처럼 걱정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흑백논리를 갖고

문제를 대하지만 우리가 만난 노회측 관계자들은 친동성애 의견과 반동성애 의견을 모두 존중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반동성애적 입장과 목회적 고충을 이해하고 은혜롭게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노회가 원만한 이전 규정을 마련한 것 자체가 이미 교단 탈퇴의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준 것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다만 노회와 반드시 협의하고 합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면 상당히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조언했다. 이 교회는 ECO로 간다.

이 외에도 남가주 지역에서 가장 큰 PCUSA 소속 교회인 선한목자장로교회도 교단 탈퇴를 결정했고 지난 3월 공동의회에서 전교인 91%의 찬성을 얻었다. 이 교회는 63만 달러의 부담금을 샌개브리엘노회에 지불하게 되며 교회와 고대형 담임목사는 ECO로 이명해 갈 예정이다.

앞서 2012년 5월 뉴욕 지역의 하운교회도 교단을 탈퇴했다. 이 교회는 샬롯제일장로교회, 베다니장로교회, 선한목자장로교회와는 달리 미국노회가 아닌 한인노회에 속해 있었다. 이 교회는 뉴욕 지역에서 가장 급성장하던 한인교회였다. 당시 동부한미노회가 공동의회 50% 출석, 80% 찬성, 3년간의 노회 상회비 납부만 충족되면 교단 탈퇴를 허가해 주는 규정을 마련한 직후였다. 이처럼 미국노회가 아닌 한인노회들은 한인교회의 교단 탈퇴에 대한 교회 측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 시켜 주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 목회자와 성도의 합의

한인교회에서는 단순히 교회 재산뿐 아니라 목회자 연금 문제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한인 목회자들 중 다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에 은퇴 후 생계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PCUSA 목회자들은 교단 연금 제도가 든든하기에 이런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었다.

PCUSA 목회자들은 연 사례비의 11%를 연금으로 받게 되어 있다. 한인 목회자들은 목회 사례비가 미국교회 목회자의 평균치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에 사례비의 11%로 비율은 같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금수령액은 미국교회 목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교단 연금국의 규정상, 연금 실수령액이 고용 직급에 따른 평균치에 맞추어 지급되도록 보장하고 있



베다니장로교회와 PCUSA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무사히 모든 절차를 완료시켰다.

는 조항 덕분이다. 예를 들면, 2014년 기준으로 한 한인목회자가 연사례비 3만 달러를 받았다고 할 때, 은퇴 후 그가 받게 되는 연금은 미국교회 목회자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사례비인 5만4천 달러에 기준해 계산된다. 그렇다 보니, 한인 목회자들에게 교단 탈퇴는 이런 혜택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최유찬 목사는 "중도해지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인목회자 가운데 동성결혼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 때문에 교단 탈퇴를 안 할 목회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단의 연금을 포기하고 탈퇴한 케이스에 속한다.

박준걸 목사는 "따라서 교단을 탈퇴하는 문제는 반드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목회자 혼자 해서도 안되고 성도들만 해서도 안된다. 목회자만 교단을 탈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목회자 노후의 현실적 문제가 된다. 그러나 성도들이 목회자의 은퇴 연금을 조금 늦추어 주는 결정만 내려도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목회자와 성도 간 합의의 중요성 중, 연금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최 목사는 "이민목회자들의 고충이 있다. 교단을 탈퇴하고 싶더라도, 만약에 공동의회 투표 결과가 80%를 넘지 못하면 교회 재산이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20%의 교인들에게 모두 귀속될 수 있기에 선뜻 행동하지 못한다"며 "교단 탈퇴 문제는 반드시 목회자와 성도가 오랜 기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베다니장로교회는 노회와의 대화와 조율, 담임목사와 성도 간의 협력으로 교단 탈퇴를 마쳤다. 지난 2013년 4월 7일 교단 탈퇴를 결정짓는 공동의회에 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insurance services. Text: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Advertisement for a health product. Text: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Advertisement for Hongsamsunak products. Text: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Large advertisement for Los Angeles ORT College. Text: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시민권 신청,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FREE Food Stamp, HEAP(Utility Bill Payment), Social Service,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건축설계...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의사보조... Medical Assistant, 약사보조... Pharmacy Technician,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ESL...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Accounting (AA Degree), 그래픽, 포토샵...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편리한 수업시간 대: 아침반, 저녁반,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교수진: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Forest Hills Chicago: Skokie'.



미주비전교회 새 성전 마련 동시에 임직예배 드려

총13명 일꾼 새롭게 세워 “아론과 훌처럼” 다짐



서약하고 있는 신동철 장로와 이지락 장로

미주비전교회(이서 목사)가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감사 및 임직예배를 10일 오후 5시에 새 성전 본당에서 드렸다. 이날 장로 장립에 이지락, 신동철 외 안수집사 임직, 권사 임직, 명예 권사 및 권사 임명 등 총 13명이 새 직분을 얻었다.

이날 이서牧사는 “새 성전과 동시에 임직식을 거행한 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전했다.

설교를 전한 안동주 목사(예장 국제총회 총회장)는 “천사들도 감동시키는 교회를 만들어 보길 기도한다”며 “새 성전을 주신 것은 감사한 것이다. 멋진 교회를 만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면을 한 김재문 목사(사랑의빛 선교교회 원로)는 “착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양심이 세속화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기

를 바란다”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사를 한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이다. 미주비전교회를 통해 복음전파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직자 대표로 인사말을 한 이지락 장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 되어서 울고 웃고 하는 가운데 귀한 자리에 세워진 것 같다. 모세의 팔을 올린 아론과 훌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임직예배는 인도 이서 목사, 기도 박병섭 목사(샌디에고사랑교회), 설교, 서약, 안수식, 안수례, 임직패/공포, 권면, 축사, 인사말, 광고, 축도 백성령 목사(그레이스미션대학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한 주디 기자

저소득층 어린이 위한 클래식 연주회 열려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기 힘든 어린 자녀, 곁을 갖 떼기 시작한 아기를 키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음악회에 가는 게 얼마나 큰 민폐인지. 그러나 음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자녀에게서 박탈하고 싶은 부모는 아마 없을 것이다.

6주에서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층에게 무료 차일드케어 서비스 혹은 0세에서 3세 자녀를 위한 가정 방문 두뇌 발달 프로그램 엘리 헤드 스타트(Early Head Start)를 운영하는 CII(Children's Institute Inc)에서는 이러한 고민에 빠진 부모들을 위해 지난 8일(금)에 뉴햄프셔길에 위치한 CII 센터에서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다.

CII는 이번 행사의 취지를 “악기 연주 는 두뇌의 공간 감각 영역의 발달과 관계가 깊다. 어릴 때, 특히 5세 미만에 악기를 배우면 공간 지능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미국 내 여러 기업에서는 공간 지능이 발달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을 뽑는다. 이들의 공간감각과 유연

한 사고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엔젤라 전, 폴 서가 첼로를 연주했고 앤드류 우, 데보라 심이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이들은 맥시칸 모자 춤, 반짝반짝 작은별, 헝가리 무곡, 하울의 움직임은 성, 첼로곡으로 편곡한 엘리제를 위하여,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 등 다양한 곡을 연주했다.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이들은 악기 연주를 관심 있게 지켜보며 음악회가 열린 1층 공간 옆에 마련된 놀이 공간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연주회 이후 악기를 잠시 소개하고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행사를 마쳤다.

CII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신분에 상관없이 각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다. 엘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5100 Ext.1840, 1120, 1617로 하면 된다. 무료 차일드케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213)385-5100 Ext.1838로 하면 된다.

한 주디 기자

미주성결교 목회자들 영적 정신적 육체적 휴식의 시간

김광수, 조종곤, 황의정 목사, 이영운 교수 등 강의



미주성결교회 교역자 가족 수양회가 2박 3일간 개최됐다.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회장 이종길목사)가 여름을 맞이해 지난 7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2박 3일간 The Westin Mission Hills Resort & Spa(팜스프링스 소재)에서 “이민 목회, 우리의 목회”라는 주제로 목회자 가족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수양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남가주교역자회는 미주성결교회 남가주 지역 3개 지방회(LA/LA동/남서부)가 연합한 조직으로 매년 여름에 목회자 가정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삼고자 수양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금번 수양회는 교단 소속 3개 지방회별로 한 명씩 주강사를 모시고 매일 저녁집회(강사 김광수 목사(성문교회), 조종곤 목사(사우스베이션교회))와 목회자 세미나(강사 황의정 목사(둘로스선교회), 이영운 교수(헵블트리니티신학대학원))를 하면서 지방회별 화합과 연합을 누렸다는 데 의의가 크다.

특히 성결교회 목회자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던 이 수양회는 각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목회자들의 이민목회의 경험과 애환을 서로 공유하면서

많은 공감대를 나누었다. 또한 유스 그룹 자녀들을 위한 미국인 특별 교사를 섭외하여 부모들과 같은 시간대에 자녀들만의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다.

올해 이 수양회를 주관한 회장 이종길 목사(주님의총신교회)는 “올해는 여행 중심의 수양회를 지양하고, 목회자 자신과 목회자 가정의 힐링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흠뻑해 하면서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했고 많이 뿌듯했다”고 밝혔다.

김나래 기자

남가주교협 이사 지낸 강종민 목사 별세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과 남가주한인목사회 예배분과위원장 등을 지낸 강종민 목사가 8월 7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4세.



강종민 목사

그는 LA한인회 수석부회장, 남가주 육군동지회 회장, 월서센터 코리아타운지역 주민의회 의원, 남가주호남향우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유가족으로는 아내 신디 강 사모와 딸 안젤라 강, 아들 케빈 강, 케니 강이 있다.

▷ 연락 : 213-500-3137

김나래 기자

교계 단신 및 행사 소식

▲종교자유 문제 전문 법률기관인 태평양법률협회(PJI, 브래드 다쿠스 대표)가 8월 28일 홀리튼장로교회(노진준 목사, 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92833)에서 “이민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종교부지 문제와 목회자의 신앙 상담시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다. 한국어 통역이 제공된다. ▷ 문의: 714-640-7471(주성철 목사)

▲오는 8월 15일 오전 11시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90006)에서 대한민국의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주최로 광복 69주년 및 건국절 66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 문의: 310-953-7867

기독교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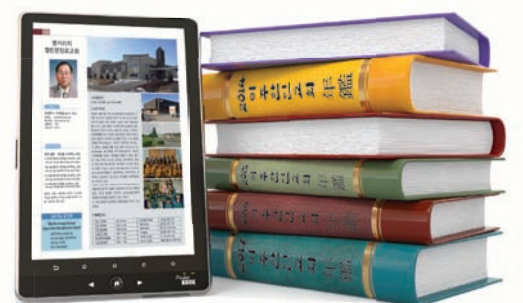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자,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토마스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미주한인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한인교계연감

미국은 물론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및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계획이며, 8,000여 미주교회와 기관(선교, 봉사, 신학교, 기도원, 기독교서점 등) 등 확실한 정보를 통해 미주한인이민과 교계에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

수집된 모든 교계의 정보들은 상호정보 교환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되어 선교적 도구로 활용될 뿐 아니라 건강한 교회와 연결되는 교도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 양면 2p광고 : \$2,000



1/2면 0.5p광고 : \$500

▶ 전면 1p광고 : \$1,000

그리스도의 심장

빌립보서 1:3-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본받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까지 살리셔서 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진리의 도리를 깨달아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의 자녀로 하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본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유(所有)

다른 목회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기록하여 자신에게 사도 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밝히고 나서 문안과 권면으로 내용이 이어졌는데, 유독 빌립보서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한 번도 부정적이거나 불신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14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서둘러 루디아라는 여인의 만남을 통하여 그 가정의 복음화 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하늘소망으로 이끌어 갔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영역을 체험하며 믿어지는 믿음의 뿌리를 진리 안에 내리게 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100% 인정했고 그의 지도를 받으며 순종하고 따랐던 교회입니다.

본문의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진리정통하고 성령충만하여 영적 성숙도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들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세웠지만 그 교회에서 얼마동안 목회사역을 하다가 마게도나로 떠날 때 이 교회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기도로 뒷받침했고, 마게도나에 가서 불모지에 교회를 세울 때에 재정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바울이 함께 있거나 떠나 있거나 항상 한 가족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앞서고 소망이 넘쳤던 것이며 이것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했습니다.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100%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마음과 뜻

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심령마다 성령을 받았습니. 이 성령의 감동과 지시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열심으로 협력하는 영적 성숙과 지욕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영적인 성과가 바로 빌립보 교회 다니는 신도들의 심령 속에서 그들을 깨우치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쓰심으로 나타나는 성과들이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 내실 줄을 확실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7절과 같이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빌립보 교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큼 소망적이었기 때문이며 그 교회가 하는 역할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과가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금식기도까지 했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된 선교헌금으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중단이 없게 사역을 도와왔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야말로 가르친 대로 믿고 자기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 닮아서 예수님 닮은 모습들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선교를 위하여 시간과 기도와 물질,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했으며, 이러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리웠던 것입니다.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손발이 잘 맞고 잘 통했기 때문입니다.

9절 이하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는 그 사랑의 모든 정성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진실되고 허물없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 성숙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한 증거(證據)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곳에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설계하고 노력했지만 끝내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빚 갚을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21살의 딸이 아버지를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 딸은 은혜가 충만하여 영적 소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어려운 상

황 속에서 아버지가 영적으로 구원 얻고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사업이 망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약과 술로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간과 심장이 피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인생은 아버지가 망가뜨려 놓았으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도록 다시 한 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포기하지 않고 일기를 써가면서 아버지를 회개시켜 구원얻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형선고를 받고, 딸이 전하는 하나님께 의지해 보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생각이었는데, 그 딸이 아버지를 모시러 가던 중 그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딸의 간과 심장을 이식받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의 어머니는 딸의 일기장을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딸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신앙고백들을 읽다가 병원으로 목사님을 모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은 딸의 희생 덕분이고 내 영혼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망해버린 사업도 인수합병으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딸과 예수님께 영육간의 빛진 인생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전도회를 결성하고 전도책자를 만들어 자신을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얻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구원을 얻었다면 다른 영혼이 구원얻게 하는 일에 합심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라

우리도 11절과 같이 하나님이 “참으로 잘했다. 네가 한 일은 다 옳은 일이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니 너의 믿음이 참으로 보배롭구나”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4:15-20에서 다음과 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스본이라는 부흥사는 “나는 손가락 같은 것으로 나누어 주는데, 하나님은 모래사막 같은 것으로 퍼부어 주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고 활용하기가 너무 두렵고 힘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어주시는 목적에 합당하게만 사용되어야 선한 청지기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ovs 4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과정)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i@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람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것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회개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내일의 꿈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의 과거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꺾어버리는 포행자요 훼방자로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증인이 되는 등 많은 열락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과거가 아닌 미래의 꿈에 이끌리어 하나님께 크게 쓰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과거의 가난이나 상처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 받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래 전에 영국의 한 청년이 유명한 사회 명사(名士)들을 상대로 여쭙고 있는 장난을 쳤는데, 다음과 같은 짧은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들롱 났다. 도망쳐라.’ 전보를 보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보를 받은 대부분의 명사들이 다 부랴부랴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인사 청문회를 보아도 ‘과거’의 비리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박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 4명 중 3명이 과거를 파헤치는 검증에 시달리다 자진 사퇴를 했고, 검증 통과를 자신할 후임자가 없어서 결국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두달 여 전에 사퇴를 표명했던 정홍원 총리가 유임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가정이 갈등과 문제에 빠지는 이유도 다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세상은 ‘과거’로 현재를 조명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값 사함을 지불하시며 죽

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 예수님 안에서는 과거로 살지 않고 미래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많은 실수를 범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부인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의 죄에 대해 묻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과거가 ‘오늘의 나’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면 그것이 바로 신앙 타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오직 ‘내일의 우리’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과거를 통해 오직 ‘우리의 미래’를 열기 위해 새로운 꿈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살롬!

위대한 모범



엄 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게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처럼 느껴진다. 그런 면에서 난 교회 안에 계신 많은 믿음의 어른들을 다시 한번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교회 안의 연로하신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곰게 늙어간다”는 표현이 적합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 분들도 여러가지 면에서 노화의 도전을 적지 않게 받고 계신다. 몸도 옛날같지 않고 마음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주류에서 한 발 비껴 서 있는 소외감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결코 신세를 한탄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체념하지 않으신다. 걸사람은 후회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처럼 젊은 시절보다 더 뜨겁고 더 순수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다. 나도 늙어가는 마당인지라 이제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것 같다. 고맙고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처럼 이 분들이야말로 진정된 용사요, 진정한 삶의 승자이다. 이런 귀한 인생의 모범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시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다. 귀한 믿음의 어른들이 천국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아름답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분들이 적지 않았다. 삼십대 후반이면 과히 젊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어르신들 눈에는 새파란 젊은이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도 몇 년 후면 육십을 바라보는 중년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서서히 늙어가는 증상들이 몸에도 마음에도 나타난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을 뿐 아니라 눈도 전 같지는 않고 그 외 여러가지 증상들이 느껴지고 그와 더불어 정서적인 감정도 조금은 다른 듯 하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문득문득 느끼는 것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몸은 늙어가고 마음은 늘 청춘이라는 표현처럼 몸의 변화를 마음으로까지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노화 현상을 마치 못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현 순호 목사
실리캔버리노인선교회

회의 신체를 안 지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들 한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자체에도 있다. 교인들을 유혹하는 세상 물결을 막을 힘이 없고 그 유혹들을 이길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목사들의 설교가 너무도 빈약하다. 깊은 성경의 통찰과 기도의 뒷받침이 약하기에 감동도 없고 지루하다. 또한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도 사명감도 없는 것을 볼 때 그곳에 더 머물겠는가!

또 있다. 교회의 장로는 섬기는 직분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마치 어떤 권위로 착각을 하고 군림하려는 것을 보면 실망한다. 더욱 괴로운 일은 내분이다. 인간들이 모인 곳에 내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도를 넘으면 서로가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인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격이 된다.

물론 순교자적 사명감으로 일하는 목회자도 있으며 또한 그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떠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교회가 있다. 단지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다는 것뿐이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교회가 지금 현재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해도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구속받지 않고 살려는 현대인들에게는 교회가 구속의 대상처럼 느껴지는 듯 싶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는 것, 또한 계명을 지키며 살라는 설교 등이 자유를 방해한다 생각하는 것이다.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만 가지를 그 정신에 맞게 실천한 미국은 여러모로 세계의 강국을 이루었다. 가정에서, 학교 그리고 작고 큰 행사에는 성경 말씀과 기도와 찬송가를 포함시켰다. 교회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을 해서 학교, 병원, 교회당을 짓고 복받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런 덕을 많이 본 나라가 한국이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한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극복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그런 도전을 잘 이겨낸 민족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장 뛰어난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대한 민족임에 틀림없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토인비의 공식은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생에도 적용된다. 한 개인도 평생을 통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 최근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그런 인생의 도전 중에는 ‘잘 늙는 것’도 있다는 점이다.

잘 사는 것이 도전이고 잘 죽는 웰다임이 인생의 큰 도전이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말씀했고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만 잘 늙어가는 것도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큰 도전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늙어가면서 새롭게 느껴진다.

연세드신 어른들이 많은 교회를 섬기는 까닭에 나는 늘 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며 지내왔다. 실제로 내가 교회에서 처음 부교역자로 섬기기 시작했을 때 나를 ‘젊은 목사’로 부르시는

반주자 청빙

자 격 :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이력서, 신앙 간증문

보내실곳 : info@sunhanchurch.com

문의 : 선한목자장로교회 사무실
626-965-3443

*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한목자장로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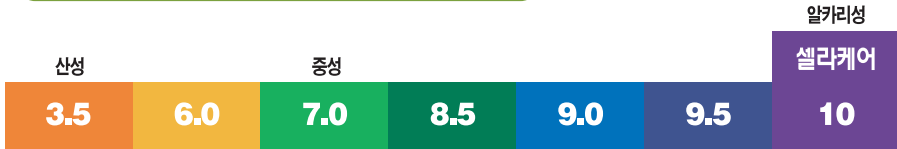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 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벽.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발작을 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제에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암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아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도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과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 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는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돌았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체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든다는 체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체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허구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팍(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푹했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도 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16

목은 우리몸에서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므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도 리를 하시면 감기에 절대 걸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잘 걸립니다. 요즘 만나는 권사님들 중에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이 많으시고 또한 심하신분 중에는 허리 수술 날짜를 잡아 놓으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분들이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허리가 아픈것일까? 와 어떻게 하면 수술하지 않고 낫을수 있을까?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찾기전에 비에 관한 성경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가 있을때 비가 지구를 다 덮어서 몇사람과 몇동물들을 제외하고 사람과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이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과학적인 증거라도 있을까요? 우선 방주의 크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6장15절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규빗, 광이 오십규빗, 고가 삼십규빗이며”** 그러니까 길이가 약 150 미터고, 넓이가 약 25미터, 높이가 약 30미터로 되어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처럼 여겨왔던 노아의 방주가 진짜로 존재할까요? 창세기 8장4절 **“칠월 곧 그달 십칠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150일동안 물에 떠 다니다가 지금의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 방주가 정착하였다고 하는것입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 일간스포츠 1974. 4. 11. **“노아의 방주 - 아라랏산 산정(山頂) 얼음 속에 있다.** NASA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성서학자-종교단체 앞다뮈 현지탐험을 서둘러” # 복음신문 1974. 3 “인공위성 과 성서의 신비 -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정 얼음 속에 있다.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 신비, 이제는 과학으로 증거하게 됐다” # 동아일보 1984. 8. 27.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 산서 찾았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 같아. 미 탐험대 해발 4,585m서 발견” # 조선일보 1970. 7. 4. **“고 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 일간스포츠 1977. 4. 2. **노아의 방주는 수세기 동안 여러번 발견됐으며 1916년 낙하산으로 투하된 러시아 군대 150명은 실제로 방주 안에 들어가 보**

고 크기를 재었으며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주 안에서 최장살이 달린 짐승 우리와 짐승의 털 그 밖에 유물들을 발견하고 돌아와 황제(니콜라이 2세)에게 자세히 보고했으나 곧 불세비키 혁명이 일어나 이 같은 종교적인 사실은 묻혀 버리고 말았다. # 조선일보 1974. 7. 6. 에도 또 # 중앙일보 1984. 8. 27. **미 제임스 어윈이 터키 동부 해발 5,165m의 아라랏산에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리고 수메르의 점도판과 고대 멕시코의 문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있습니다. 아침에 비가 내리고 또 내렸다. 나는 밤에도 장대비가 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나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첫째 날에는 남풍이 무서운 속도로 불었다. 사막에는 전장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고 앞을 다투어 산 속으로 달아났다. 다른 사람을 구할 엄두도 못낸 채 정신 없이 달아났다.” “하늘이 땅에 다가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산도 물속으로 솟았다. 바위가 땅 위 모든 것을 뒤덮고 용암이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끓어오르고 붉은 산이 춤추며 위로 솟구쳐 올랐다. 홍수의 무서움을 기록한 고대 문서입니다. 지금은 터키 정부에서 아라랏산의 입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 볼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볼수 있는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앞으로 남은 예언들도 다 이루어 질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허리의 통증치료 방법으로 돌아 가면 허리를 다친적도 없는데 아프신분은 신장과 간에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아픈것입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미네랄을 드시고 수술날짜를 받아 놓았던 권사님도 수술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미네랄은 골수를 채워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알칼리test에서 10점 만점중 5점을 받은 제품도 시중에서는 구하기 힘들데, 기적의 영양제 M3는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무슨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뉴저지 (동부총판)	201.983.8333
시온약국	213.382.6485	LA별론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시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종로로리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랜하이츠	626.912.5727	플로리다	770.457.1717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지구촌약국 (H마트 내)	213.820.1469	캐나다	604.872.16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55년만에 한 자리 모인 통합과 합동... “이제 다 새로워질 것”

사랑의교회서 예장 통합·합동 목회자·성도 모여 연합기도회 개최



예장 통합·합동 증경총회장단이 주최하는 ‘연합기도회’가 10일 사랑의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 형제였지만 갈라섰던 대한예수교장로회가 반 세기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 이 첫걸음을 통해 연합의 불씨가 활활 타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 통합·합동 증경총회장단이 주최하는 ‘한국교회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기도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4:3)라는 주제로, 예장 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과 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 목회자들, 사랑의교회 교인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한국교회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 개하며 치유와 회복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합동 증경총회장단 회장 서기행 목사의 사회로 김순권

목사(통합 증경총회장)의 경과보고 및 인사말에 이어 김동권 목사(합동 증경총회장)의 기도, 권영식 장로(합동 증경장로 부총회장)와 김철모 장로(통합 장로 부총회장)의 성경봉독, 김삼환 목사(통합 증경총회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순권 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1959년 예장 통합-합동 분열 이후 55년 역사에 대한 깊은 반성적 성찰은 양 교단 지도자들에게 늘 있었다”며 “지난 해부터 양 교단 증경총회장들의 공동기도와 대화, 만남이 꾸준히 모색돼 오던 중, 2014년 광복주일인 8월 10일 주일에 양 교단 연합기도회를 열고 희망찬 새 역사를 이뤄갈 것을 다짐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김 목사는 “양 교단 증경총회장들은 지난 6월 9일, 8월 10일 사랑의교회에서 양 교단 연합기도회를

개회기로 하고 실무준비 6인 위원(합동 측 김동권, 서기행, 홍정이/ 통합 측 김순권, 김삼환, 조성기)를 구성했다”며 사랑의교회에서의 연합기도회는 6차례의 공식 모임(회의)과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순권 목사는 끝으로 “(연합 기도회는) 정치성도 없고 다른 욕심도 없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교를 전한 김삼환 목사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먼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대조적으로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며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 이웃을 미워하고 싸운

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동과 통합이 55년 만에 만났다. 한 나라 한 땅에 살았지만...”이라며 “1959년 총회 이후, 이렇게 모인 것은 증경 총회장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시고 탄식하면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감격스러워 했다.

또 “성경에는 부부와 형제가 먼저 화해하고 풀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양 교단이 이렇게 풀면 오늘 하늘문이 열릴 줄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것을 장자 교단인 우리가 가르쳐 줬다. 국회도 학교도 가정도 때리고 싸운다. 우리 나라가 왜 이러는가”라며 “이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오늘부터 새로운 창조와 세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이어 “이제 새로운 55년이 오고, 이제 통일도 올 것이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교회가 하나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합동과 통합은 한국교회의 장자다. (화해한다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동안) 분열되고 싸우는 것을 보고 배웠는데, 이제 다 새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설교 도중 합동 측 서기행 증경 총회장과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와 각각 포옹하며, 하나됨의 의미를 더했다.

설교 후 이어진 특별기도회에서는 최기재 목사(합동 증경총회장)가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종순 목사(통합 증경총회장)가 ‘한국 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장차남 목사(합동 증경총회장)가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 김창인 목사

(통합 증경총회장)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하고, 홍정이 목사(합동 증경총회장)의 광고에 이어 립인식 목사(통합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기도회는 성공적이었던 평가와 함께 예상보다 예상 합동 측 목회자들의 불참이 많아지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예장 통합과 합동의 분열과 반목의 역사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이날 연합기도회에 양 총회 현 집행부가 참여하지 않은 채 증경총회장단 위주의 기도회로 진행됐다는 점이 ‘옥의 티’였다.

특히, 예장 합동 안명환 총회장이 기도회를 겨냥해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연합기도회’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점은 이날 기도회는 물론 앞으로 연합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안 총회장은 이 담화문에서 “교단의 연합 활동 및 연합 행사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총회의 허락없이 교단의 이름으로 연합활동 및 연합집회를 갖는 것에 대해 총회장은 어떤 책임도 질 수 없음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안 총회장이 연합활동 및 연합집회를 찬성하지 않는 이유로 “WCC 사상과 하나될 수 없는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합동 내에서도 예전과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 WCC 문제가 양 교단의 연합활동을 막을 명분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여서 향후 예장 통합과 합동의 연합운동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윤 기자

뜨겁게 기도하는 청소년 있어 한국교회 희망 있다

라이즈업무브먼트(대표 이동현 목사)가 주최하는 ‘2014 라이즈업코리아 810 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가운데 쏟아지는 비도 전국에서 모여든 청소년들의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막지 못했다.

라이즈업워십밴드의 인도 아래 시작된 찬양에서 이동호 선교사는 “빛 속에서 모임을 가진다”며 “빛속이 한국교회의 현실일 수 있지만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한국교회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2014년에는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았다”며 “하나님, 저희가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이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한국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자”고 요청

했다. 찬양 ‘나의 백성이’가 흐르는 가운데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바로 옆 세월호 추모분향소를 바라보거나, 무릎을 꿇고 손을 든 채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빛속에서 찬양과 기도가 이어진 이후 말씀을 전한 이동현 목사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아모스서에서 말한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와 열방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곧 이어,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으로 변했다. 가족과 자기 이익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 땅의 아픔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흘리며 기도하지 않았다”며 그리스도인의 잘

못을 지적하고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고통 속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 교회가 다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목사는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속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면서 “치유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 심령(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소리쳤다.

이후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들을 위한 영접기도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이어졌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겪은 희생자



10일 서울광장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인 가운데 라이즈업무브먼트가 주최한 라이즈업코리아 810 대회가 열렸다. ©라이즈업코리아

와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마음으로 비로 젖은 땅에 무릎을 꿇고 이 땅의 아픔을 감싸 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자리였다”며 “라이즈업코리아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씻겨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라이즈업코리아 관계자는 “서울광장에 모인 모든 세대가 느헤미아의

마음으로 비로 젖은 땅에 무릎을 꿇고 이 땅의 아픔을 감싸 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자리였다”며 “라이즈업코리아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씻겨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근일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여름 핫 세일!!!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어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도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코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안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 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관찰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민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라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도 뜰아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은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의학박사로서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 헬스, Inc. / HQ 바이오텍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에볼라 감염 선교사들 “주님께서 평안 주셨다” 간증

시련 속에서도 신앙 지킬 수 있도록 기도 요청



라이베리아에서 의료봉사 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낸시 라이트볼 선교사와 켄트 브랜틀리 선교사

서아프리카에서 의료사역을 펼치던 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두 미국인 선교사가 자신들이 처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간증하고 있다.

미국 SIM선교회 소속의 낸시 라이트볼(Nancy Writebol) 선교사와 사마리아인의지갑(Samaritan's Purse)의 켄트 브랜틀리(Kent Brantly) 선교사는 11일 현재 미국으로 돌아와 의료시설에 고립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라이트볼 선교사의 남편인 데이빗 라이트볼은 미국 SIM선교회 브루스 존슨(Bruce Johnson) 회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고 있다”며 라이트볼 선교사와 가족들의 근황을 전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특히나 40년 간을 함께 해 온 배우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모든 상황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데이빗은 라이트볼 선교사가 현재 최상의 치료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선교회와 교회 등에서 지원의 손길은 물론 기도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도

감사했다.

그는 “교회에서도 우리 가족을 지지해 주고 있다. 스스로를 위협에 내모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 주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과 같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기에 우리 역시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브랜틀리 선교사는 상대가 호전됨에 따라서 직접 편지를 통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나와 낸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준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브랜틀리 선교사는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일어난 국가들 중 하나인 라이베리아에서 의료 사역에 전념해 왔다. 그는 라이베리아에 있던 당시를 회상하며, “에볼라가 라이베리아에 퍼지면서 내가 있던 병원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에볼라 감염자들을 치료해야 했다. 나는 가까이서 바이러스의 공포를 직접 보았다. 또한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아직까지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틀리 선교사는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을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었다고 간증했다. “양성 반응이 나왔던 그 순

간 내가 느꼈던 매우 깊은 평안함을 아직 기억한다. 그것은 모든 이해를 넘어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내게 주셨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가르침이었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편지에서 변함 없는 헌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내가 지금도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브랜틀리 선교사는 끝으로 자신과 라이트볼 선교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상황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 논객이자 작가인 앤 쿨터(Ann Coulter)는 최근 자신의 칼럼에서 ‘브랜틀리 박사 같은 기독교 사역자들은 제3세계에 봉사를 하러 가기에 앞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쿨터는 이 글에서 “브랜틀리 박사는 왜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야 했는가. 치사율이 90%가 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아프리카 여행 아닌가”라며, “이제 아무도 미국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같은 칼럼에 미국 교계 지도자들은 쿨터가 기독교 선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기독교 전문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의 에드 스테처 회장은 “앤 쿨터에게 하나님의 선교의 의미를 정의하라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라며 자신의 트위터에 즉각 반박의 견해를 밝혔다.

손현정 기자

교인들 제자화 안되면

큰 교회도 의미 없어

새들백교회 비결도 단계화된 제자화 사역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가 교회의 제자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교인들이 제자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갖고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커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히스패닉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 컨퍼런스 ‘리더비전(Lider Vision)’에 강사로 참석해 새들백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새들백교회는 2만5천여 명의 교인 수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워렌 목사는 강연을 통해서 “이러한 숫자는 목회자가 올바른 목적 아래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교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일 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며, “교회는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수의 모임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모임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고 전했다.

워렌 목사는 이날 강연에서 교회 비전자였던 사람들을 신자로 바꾸어내고, 이들을 또다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나가는 사역, 즉, 제자화를 위한 과정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했다.

워렌 목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은 교인들의 성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했다.

그는 지난 34년간 성공적으로 이뤄져 온 새들백교회 사역의 ‘비결’도 단계화된 예수님의 제자화 사역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저 따라오라고 하신다. 헌신하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헌신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워렌 목사는 “교회의 사역은 사람들을 ‘와서 보라’



릭 워렌목사

의 단계에서 ‘와서 죽으라’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며, “이것이 새들백교회 사역의 비결이고 우리는 이를 ‘예수님 모델(Jesus model)’이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그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와서 보라’로 시작하셨다. ‘와서 보라’는 모든 사역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와서 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초대에 가깝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이것 이상으로 더 말하거나 뭔가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워렌 목사는 새들백교회의 또다른 성장 비결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목적을 갖고 사역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17장, 에베소서 4장에 기반한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라고 꼽았다.

워렌 목사는 이외에도 이날 강연에서 지난해 자신의 막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해였지만 교회는 가장 크게 성장한 해였다”고 회상했다.

워렌 목사가 가족들과 치유의 시간을 가지며 강단을 비운 4개월 동안에 새들백교회에서는 4천 명이 세례를 받았고, 3천 명의 새 신자가 늘었다. 그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화 모델 위에 세워져 있으면 지도자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현정 기자

미국결혼협회, 동성결혼 지지 공표한 타겟에 불매운동

JP 모건체이스와 스타벅스에도 불매운동 벌여

대형 소매점 타겟(Target)이 5일 법정 소송에서 결혼 평등성을 지지한다고 공표한지 48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 미국결혼협회(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가 이 체인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타겟은 앞서 다른 대형 회사들이 결혼 평등성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데 이어, 시카고 연방항소법원(Federal Appeals Court) 앞에서 법정외견서

(Amicus Brief)에 서명하며 결혼 평등성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미국결혼협회 브라이언 브라운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타겟이 나와 당신 같은 소비자를 모욕했기 때문에 새로운 불매운동을 함을 알린다. 이번 주에 그들이 법원에서 서명한 법정외견서는 전통적 결혼을 지지하는 데 표를 던질 나

와 당신 같은 사람들을 차별주의자, 인종적 편견을 지닌 사람과 유사한 존재로 은근히 몰아갔다. 당신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곳에서 쇼핑하길 원하는가?”

미국결혼협회는 동성 커플이 결혼할 권리를 지지하는 법률과 기업에 열정적으로 반대사를 표해온 역사를 지닌다. 과거 이 협회는 JP 모건체이스와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인 바 있다.

한 주디 기자



장수 한의원

- 척추 교정
- 골반 교정
- 자세 교정
- 근육 교정

-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척추
- 영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뼈뺀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 통증 클리닉 :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 성 클리닉 :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 한방 내과 :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선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 한방 부인과 :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 한방 정신과 :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병
- 한방 소아과 :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방 및 보약
- 기타 : 비만치료
- 이런분께....
-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앓고 싶은 분
-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213)381-7575 / Cell:(213)219-2739 3523 W. Olympic Blve. #102 Los Angeles, CA 90019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열정과 패기로 비전을 심는 대학



선교비전의 꿈을
이곳에서!

www.aeui.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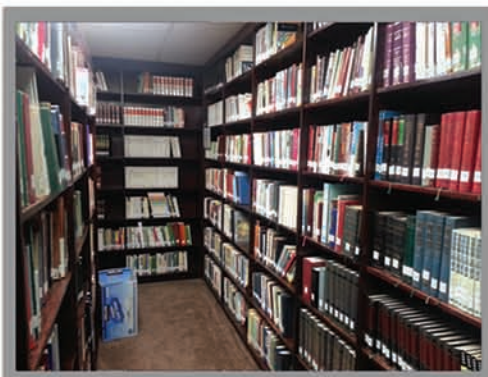
본 대학교의 특징

- 캘리포니아 주정부 BPPE인가
- 북미주대학협의회(ABHE Candidate) 및 신학대학원 협의회(ATS Associate) 회원
- 졸업 후 목회자, 선교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사역
- 한국과 미국 어디서든 가능한 온라인 강의
- 국내외 우수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뛰어난 교수진



특전

- SEVIS I-20 Form(대학 및 대학원) 자체발행
- 연방정부 장학금(Grant) 및 융자(loan)가능
- 성적과 자격에 따른 다양한 장학금(11종류)



학위과정

- 학 부 : 기독교학과(B.A)
- 대학원 : 목회학 석사(M.Div.), 상담학 석사(M.C.C.), 선교학 석사(M.M)



입학지원 절차

1. 가을학기신청마감 : 8월 20일 오후 5시
2. 입학서류 : 본교 소정 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3. 장학생 선발 면접 : 8월 21일 오후 5시
(면접 희망자는 행정처 T. 213-407-4569 문의바람)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주성결대학교)

T. 323-643-0301, F. 323-643-0302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최덕성 박사의 특별기고] 교황 프란치스코께 묻는다 ② 만인보편구원주의

‘예수 없이도 구원 받는다’ 는 로마가톨릭교회(1)

로마가톨릭교회는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과 무슬림도 구원받고, 미지의 신을 찾는 사람들,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만인보편구원주의’를 표방한다.

로마가톨릭교회와 역사적 개신교회의 으뜸가는 차이는 구원론이다. 로마가톨릭교회는 행위구원 교리로 유명하다. 오늘날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표방한 만인보편구원주의가 심각한 교리로 대두되어 있다. 역사적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 고백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이며 화해자라고 믿는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개신교회는 다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는다는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를 중요하게 여겨왔다.

개신교회 안에도 만인보편구원주의 사상을 가진 교회들이 있다. 자유주의 신학에 개방적인 진보계 교회들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이 사상을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총과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표현한다. 로마가톨릭교회의 만인보편구원주의와 WCC의 종교다원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것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르다. 예수를 믿어야 할 까닭, 당위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1. 구원의 길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는 현대 로마가톨릭교회의 교리를 확정지었다. 교황 요한 23세는 공의회를 소집하면서 “교회 생활의 모든 분야

가 현대 세계에 ‘적응’하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의식 변화를 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 공의회는 교회의 자각과 쇄신, 신앙의 자유, 종교와 정치의 역할 찾기, 개별 민족과 사회 존중, 세계 평화, 개신교를 포함한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 타종교와의 대화, 예전 개혁 등 로마가톨릭교회의 현대화를 촉구했다. 한국천주교회의 조상 제사 수용, 각국의 토착화된 성모상 등장, 미사 집전 때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 사용, 평신도 역할 부상 등의 변화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일어났다. 만인보편구원주의는 이 같은 변화의 물결을 따라 로마가톨릭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연구·토론·결정한 4개의 헌장,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에 담겨 있다.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바티칸이 제정한 <가톨릭교회교리서(1997)>도 중요한 문서이지만, 공의회 문헌은 가장 권위 있는 원 자료, 1차 자료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교회헌장’은 교황이 지배하는 로마가톨릭교회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과 로마가톨릭교회를 일치, 등식화한다. 로마가톨릭교회를 신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 곧 로마가톨릭교회 안에서 인간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제14항).

‘교회헌장’은 자기 탓이 아닌 까닭으로 로마가톨릭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고, 구세주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아직 하나님을 분명하



최 덕 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한다. 타종교인들이 “가진 좋은 것, 참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복음의 준비로 여기며, 그것들은 모든 사람이 마침내 생명을 얻도록 빛을 비추시는 분께서 주신 것(제16조)”이라고 한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비그리스도교 선언’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기원이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고 한다(제1항). 힌두교는 신에게 귀의하여 인생교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한다. 불교는 자기 노력으로 궁극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 그 밖의 전 세계 종교들도 교리와 생활 규범과 신성한 예식 등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가톨릭교회는 이들 (타)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 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뿐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한다. 그것이 비록 가톨릭교회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진리의 빛을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제2항)고 한다.

로마가톨릭교회는 무슬림과 유대

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로마가톨릭교회에 따르면 무슬림은 살아 계시고 영원하며 자비롭고 전능한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유일신을 흠송하며, 예수님을 예언자로 받아들이며, 또 마리아를 공경한다.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 공정하게 갚아 주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제3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 “그들의 조상 덕택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롬 11:28-29)”이라고 한다(제4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공의회는 당시의 모든 유대인 생존자와 그 후손에게 그 책임을 차별 없이 지울 수 없다고 한다. 예수를 죽인 책임은 그 사건에 가담한 유대인 당사자들에게만 있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버림받고 저주받은 백성인 것처럼 표현함은 잘못이라고 한다(제4항).

2. 비그리스도인의 구원

로마가톨릭교회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따라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순한 무지, 불가피한 무지를 조건으로 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바티칸은 로마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비로마가톨릭 신자들과 “타종교의 추종자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주님 이신 예수님, 2000, 제22항)”고 선언한다.

개신교회 신자들, 비로마가톨릭교회 신자들(정교회, 성공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교회 분열의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당사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당사자가 아닌 경우, 곧 개신교회나 정교회 가정에서 태어나 로마가톨릭교회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만 ‘불가피한 무지’를 조건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교회헌장, 제14항-제16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따라 신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한다(제16항).

정리하자면,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 ①유대인: 조상 덕택으로 구원을 받는다 ②창조주를 알아 모시는 모든 사람들: 신을 믿는 모든 종교인들 ③이슬람 신도들: 아브라함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④어둠과 그림자 속에서 미지의 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 ⑤진실한 믿음으로 신을 찾는 사람들 ⑥양심의 명령을 따라 신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⑦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계속)

[민중기 칼럼]

도시에 넘쳐나는 기쁨(사도행전 8:8)

복음주의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 Wolterstorff)는 그의 기념비적인 서적 “정의와 평화의 그늘까지”(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에서 신자의 영향력이 단지 개인의 경건과 구원에 머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기독교가 도시의 정치, 경제 시스템과 도시의 건강한 변화에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하여 자크 엘룰(J. Ellul)에 이르는 “도시신학”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월터스토프는 도시의 미래가 “기쁨의 도시”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쁨의 도시는 정의의 실천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평

화, 곧 살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쁨의 도시는 이 세상에서 실천될 수 있을까요? 도시의 기쁨은 어떻게 넘쳐나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쁨의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큰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정의와 자비가 충만하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땅의 왕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비로소 도시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므로 기쁨의 도시의 전형입니다. 정의와 평강이 임박하고, 공의와 사랑이 도시를 채울 때, 그 성의 거주민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신약성경에도 “그 도시에 큰 기쁨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이 있더라(There was great joy in that city, 행 8:8)”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일곱 안수집사 중에 스테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신자들이 예루살

렘에서 흩어져서 그들이 이르는 곳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안수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빌립을 따라 회심하고 치유됩니다.

기쁨의 도시는 세 차원에서 이루어 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육체가 치유되는 것,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온전하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사로잡은 사회적 시스템이

변화되는 것은 온전한 도시를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복음은 개인의 구원은 물론이요, 도시의 기쁨을 일으킵니다. 이제 도시의 거민들이 더 이상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사역은 그러한 면에서 사마리아는 불신의 도시를 총체적으로 변화시켜 기쁨의 도시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어떠하여야 할까요? 빌립 집사처럼,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도시에 기쁨을 주며,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통하여 주변의 민족을 구하는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물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너는 내 것이라

김진성 | TnD북스 | 168쪽

목동 진리와제자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있는 저자의 마가복음 설교집. 어렵지 않은 담백한 목소리로 십자가 보혈을 증언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 생활을 하던 저자는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회심했고,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동티모르에서 근무하던 중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중령으로 예편 후 신학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을 선택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조지 버워 | 예영 | 312쪽

오웬선교회 설립자이자 최근 로고스호프의 방한으로 관심을 모은 이들의 '선교선(船)' 사역을 고안한 저자가 50여 년 동안 전한 메시지들을 모았다. 간증과 함께 50여 년 간의 사역 경험, 급진적 메시지들을 진솔하게 전달한다. 저자는 "모든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을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더욱 다듬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믿음불패

이규현 | 두란노 | 276쪽

아벨과 에녹, 노아와 아브라함 등의 믿음을 증언하는 히브리서 11장 강해. 이들의 '믿음의 여정'을 10가지 주제로 정리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애매한 것에 인생을 걸지 않았다. 모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출발했다. 그들은 무모한 도전을 하지도 않았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삶이 이끄는 선명한 결론을 보여준다.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정성자 | 규장 | 216쪽

캐나다 최대 교육그룹 창업자의 아내이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시온선교함 창단 상임 지휘자인 저자의 '아픔'을 담았다. 자폐 진단을 받은 큰 아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 가장 놀라운 선물이자 복이었다. 갑작스런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그의 꿈을 기리고 장애인들을 섬길 목적으로 시작한 카페에 대해서도 말한다.



REVIEW

성지에서 걸어낸, 이 시대의 '하갈' 들 향한 따뜻한 시선

김영봉 목사의 성지순례 묵상집 <팔레스타인을 걷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시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서로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유대인 10대 소년 3명의 실종으로 촉발된 양측간 '피의 보복'은 이곳이 '성지(聖地)'임을 무색케 하고 있다.

앞선 지난 2월, 이곳에서 진천중앙교회 성지순례단은 폭탄테러라는 참극을 겪기도 했다. 실로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발상지'보다는 '인류의 화약고'가 어울린다.

<팔레스타인을 걷다>는 스테디셀러 <사람의 기도(이상 IVP)>를 쓴 김영봉 목사(와싱톤 한인교회)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 성도들에게 전한 설교들을 토대로 썼다.

저자는 "많고 많은 안내 책자가 있

음에도 설교를 책으로 묶어내는 이유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설명을 담은 책은 많지만 이면을 보고 생각하게 하는 책은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을 통해 성지순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도록 돕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부제도 '성지에서 걸어낸 생명과 평화의 묵상'이다.

최근의 분쟁 때문인지 아랍인들에 대한 이야기에 눈길이 간다. 저자는 텔아비브 공항 검색대에서 삼엄한 경비를 경험하고, 한 팔레스타인인이 던진 열음 주머니에 맞기도 했다. 그리고 성경 속 하갈을 묵상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두 가지 오해를 지적한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모든 아랍인의

조상이라는 오해이다. '아랍인'은 특정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아랍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스마엘이 무슬림의 조상이라고 반드시 말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이곳의 분쟁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시작됐고, 당시만 해도 이곳 주민들 중 약 20%가 기독교인이었으나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둘째로 이스마엘과 그 후손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오해이다. 성도들은 성경 속 이스마엘이 저주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아랍인들도 저주받을 마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한다고 오해한다는 것. 저자는 "이스마엘은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팔레스타인을 걷다 김영봉 | IVP | 264쪽

저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당한 고통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뚝 부러지지 않는 대응'을 놓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처럼 불의가 판치고 피눈물 흐르는 곳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악행과 눈물과 한숨을 엮어 결국 그분 뜻을 이루신다"며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고 들으시는 하나님

로, 때로는 모르는 것 같고 무심한 것 같고 편애하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듣고 계신다"고 전한다.

이외에도 책에는 단순히 '관광 코스'로서가 아닌 성지순례를 통한 여러 묵상과 함께, 이 시대의 '하갈(약한 자)'들을 향한 저자의 따뜻한 시선들이 녹아 있다.

순례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만나러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이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굳이 성지순례를 하지 않아도 이 책은 순례자의 마음을 알게 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 인생 길 자체가 순례이므로"라고 강조했다.

이대용 기자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후 배달**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래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악동뮤지션의 선교사 부모 “가정은 서로에게 배우는 학교”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 출간



이성근·주세희(오른쪽부터) 선교사 부부는 책에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데, 소통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바로 그 기술이 결정한다”며 “친척이와 대화가 되지 않았던 경우를 짚어보면,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흥분해서 쏟아낸 경우가 많았다. 부모가 아이를 먼저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많이 들어주면 아이도 말을 많이 한다”고 했다.

SBS 'K팝스타2'에서 우승한 남매 듀오 '악동뮤지션'의 부모인 이성근·주세희 선교사가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를 펴내고 서울 잠실 교보문고 티움에서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웠다' 강연 및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부부는 국내 기록 출판사와 예배사역 단체 등에서 일하다, 2008년 가족들과 몽골로 떠나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과 MK스쿨에서의 '영어 스트레스' 때문에 자녀들에게 홈스쿨링 교육을 실시했으며, 자녀들은 한국 체류기간 동안 재미 삼아 나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거머쥐었다. '악동뮤지션' 찬혁·수현은 방송에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음악세계를 펼치면서도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랑받아, 부모의 교육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도 했다. 이 책은 바로 부부가 내놓은 하나의 대답이다.

들에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다”며 “부모와 가족에게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행복을 경험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정은 서로에게 배우는 학교로, 참된 교육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아빠' 이성근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친구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사춘기 아이들에게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하는 존재는 바로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선교사는 “아이들이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생기는 것이 바로 친구 때문으로, 친구는 심지어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면서 “그것을 부모 입장에서 서운해 하기보다 인정해 주고, 친구 관계에서 시너지 효과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마' 주세희 선교사는 “아이들이 오늘 불행하게 잠들면 내일 깰 때 너무 힘들지만, 오늘 행복하게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에도 즐겁게 눈을 뜰

수 있다”며 “아이들은 행복도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 같다.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해하더라”고 전했다.

건강한 가치관, 정서적 안정감, 대가 지불

자녀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세 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첫째는 '건강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 선교사는 “너희들이 최고야, 너희들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라는 말을 계속 해 주면서 건강한 자존감을 심어주고자 했다”며 “가정에서 계속 자존감을 불어넣어 주면, 훗시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망할지라도 돌아올 지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주 선교사는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용기가 없다는 이야기”라며 “저희 자녀들이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 선교사는 “친할머니마저 (외모가) 못났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못났지만 예쁘다고 계속 이야기해 줬다’며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못생겼지만 상처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외도의 지적에 오히려 '못나'라는 꼬라지 만드는 '강한 멘탈의 소유자'가 됐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덧붙였다.

이 선교사는 “힐링캠프에 함께 출연한 가수 아이유 씨가 '사춘기 시절 일찍 데뷔해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했다”며 “자녀들을 믿어주고 세워줄 가정이 있는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계속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려분의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서 안정감을 누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여전히 자신을 신뢰해 주고 사랑해 주고 최고라고 이야기해 줄 가정이 있다면, 상처받고 실패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는 '정서적 안정감'이다. 이 선교사는 “자녀들에게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줘야 한다”며 “우리의 기초 즉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가치가 돈이나 명예에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태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고자 했다”고 했다.

셋째는 '하고 싶은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부부가 홈스쿨링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로, 갖고 싶은 것을 갖거나 하고 싶은 일을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는

결과, 즉 꿈꾸는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강연에서 자녀들에게 강조했던 10가지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네가 최고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자존감)”, “함께 하자, 함께 놀자(하닌된 가족)”, “너에게 어울리는 것이 뭘까?”, “뭘 좀 재미있는 일 없을까?(추억 만들기)”,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거야”, “와! 정말 멋지다”, “너도 할 수 있어”, “무엇을 먼저 할래?(대가 지불과 책임감)”, “내가 미안해(먼저 손 내밀기)”, “사랑해(가장 큰 가치)” 등이다.

'아빠'는 실수를 고백하기도 했다. 이 선교사는 “아빠로서 몽골이라는 환경으로 와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것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이 있었다”며 “그 책임감 때문에 아이들도 아내도 불편하고 긴장시키면서 힘들게 했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었다. 책임감이 과도하면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신앙 교육,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계속 해 오는 등, 저희가 선택하고 살아온 삶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었고,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자로 섬겨왔다”며 “따로 무엇을 했다가보다, 아이들이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다”고 전했다.

이성근 선교사는 “저나 아내나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청소년 시

절을 지내면서 신앙이 아니면 버틸 수 없었다”며 “과격할 말이지만 체험을 통해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아빠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고 싶은 것을 다 사줄 수 없다'고 말해줬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 선교사는 “내가 가지려 하면 가질 수 없고, 자신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나눌 때 오히려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작은 일이지만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험하게 하셨다”며 “신앙을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도 나눴다”며 “아빠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을 사랑하셔. 아빠는 실수하고 욕 하고 화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래 그러지 않으셔”라고 말씀을 통해 설명해 준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자존감이 생기면 더 큰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심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대웅 기자

부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

이날 강연에서 부부는 참석한 부모



이들은 “감사는 화해를 하게 만든다.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시간인데 응어리진 것을 풀어준다”며 “분명 우리가 지나온 현실은 죽을 만큼 힘들었고 치열했지만, 돌아보니 받은 게 많고 우리가 베푼 것도 많았다. 삶이 결코 빈곤하지 않았다. 목상을 하면서 나는 감사가 가진 은혜에 감동했다. 사람들은 재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아야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감사가 많아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다.



부부에 앞서 <목소리를 높여 high>라는 책을 먼저 펴낸 악동뮤지션의 모습. 이들은 오디션 당시 '다리 꼬지 마', '매력 있어', '리먼인 건가'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가사와 독특 튀는 멜로디로 큰 호응을 얻었다.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루미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추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임팩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짐 분 허리 굽은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제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CORSET Tel: 323.316.6815
http://blog.daum.net/ysbla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35.5900 714.743.1000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당뇨병의 원인

이전엔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금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금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타주 대리점 모집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미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션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잘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치우차우만두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소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윈현대 칼슨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말레이시아에서 '창조 선교' 펼치는 <하나님의 셰프> - 마창선 선교사

“복음을 위해, 실패를 무릅쓸 준비 되셨습니까?”

MBA 출신의 잘나가던 컨설턴트였다. 그러나 지금은 '뜨거운 나라'의 '더 뜨거운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 말이 좋아 '셰프'이지, 알고보면 꽤 격한 육체노동과 진배없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의 '사역지'가 '땅끝'이기 때문이다. 종교적·정치적 이유 때문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에서, 복음을 위해 주방장이 된 것.

말레이시아에서 '다리 카페'를 운영하며 비즈니스 선교(Business as Mission)를 하고 있는 마창선 선교사를 만났다. 카페에서 '바리스타'가 아닌 '셰프(chef)'가 된 이유는, 그 지역의 '카페'는 식사까지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2차 사역을 준비 중인 마창선 선교사는 <하나님의 셰프(생명의말씀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복음을 위해 실패를 무릅쓸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의 전문성은 6년 간 끊겼습니다. 꽤 많은 비용과 기회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유목민 생활은 저를 부모님에게 6년 동안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불효자로 만들었고, 두 아이에게는 안락한 가정의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나 말레이시아에서나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전제가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이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삶은 실패일까?

복음 선포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중동 및 이슬람 지역은 '창의적 접근지역(Creative Access Nation)'이라 불린다. 그는 이곳에서 '창조 선교(Creative Mission)'를 하고 있다. 특히 한류 문화를 통해 대학생들과 접촉점을 만들어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책에는 이러한 그의 사역 이야기와 함께, '마 셰프의 창조 선교 특강'을 통해 창조 선교의 개념과 BAM(Business as Mission)의 실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마창선 선교사와의 일문일답.

-한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보편적으로 '안식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본국 사역'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5년 간 현지에서 가능한 '창조 선교'의 모델을 개발하고 기반을 닦아 '팀 사역'의 단계로까지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두 번째 지역을 개척하려 합니다. 선교사가 없는 지역으로 갈 생각이기 때문에 재정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카페와 문화센터가 필요하고 나중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댄스 강습을 하는 모습 ©선교사 제공

에 기숙사까지 세우려면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다리 카페'에도 한국에서 4명의 젊은이가 1년 단기선교를 와 두고 있는데, 이러한 동원 사역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베이스의 개척까지 성공하면 이 나라의 땅 끝에 있는 인구 20만 명 정도의 중소도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동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지에서 개발된 이 사역을 좀 더 세련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개척이고 모든 게 부족하다 보니 카페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메뉴판이나 식단의 매뉴얼 등을 새롭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척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작업을 전문으로 하던 컨설턴트였는데, 주방장이 되니 제 머리는 잘 못 꺾겠더라고요(웃음).

세 번째로 현지에서 함께할 수 있는 문화사역들을 좀 더 개발할까 합니다. 어린이 댄스팀인 노아 사역은 이미 현지에 두 곳을 개척한 상황인데, '마커스'처럼 찬양집회 형태의 모델을 대도시에서 하나 열거나, 부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문화예배 또는 경배와찬양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영상물과 전도지 디자인 등을 수준 있게 개발하고, 한국의 창조적 능력을 가진 사역자, 사역단체들과 협력의 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셰프이자 선교사로서, 선교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선교는 삶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말로 전하는 복음과 함께, 삶으로 복음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복음을 너무 말로만 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폐해가 지금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형제를, 원수를 사랑

하고 용서하고 연합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치열하게 살아낼 때, 닫힌 복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제 의견은 좀 다르지만, 비즈니스 선교사들 중에는 구체적인 복음전도나 선교 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주장도 하십니다. 복음을 살아내면, 저절로 복음화가 된다는 것이겠지요. 당신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고 '천국이 이런 곳이었구나' 하고 보여주면, 관심이 생겨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은 결국 '하나님 때문'으로 풀리겠지요.

무슬림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유일신과 무슬림으로서의 형제애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그 지역에서 선교하려면, 그들 이상의 도덕성과 영성이 필요합니다. 말로 하는 종교적 영성이 아니라 삶의 영성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비즈니스나 문화를 이원론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세상 비즈니스와 한류문화로 전도의 접촉점을 삼느냐는 시선이 있는데.

한류는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모티브'일 뿐입니다. 가끔은 이런 멘트도 합니다. '너희들 슈퍼주니어 좋아하지? 그들 중에 크리스천이 많아.' 그들이 콘서트에서 CCM '아주 먼 옛날'을 부르는 동영상도 보여주지요.

저희 카페는 한류 문화를 보여주고 소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케이팝(K-POP) 가수들의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2AM이나 시스타, 빅뱅 등의 사인이 담긴 CD들도 전시합니다. 스타들의 브로마이드도 많이 붙여 놓았지요. 한번은 현지인 크리스천 직원이 가스펠을 틀어놓고 있기에 깜짝 놀라서 제가 끈 적도 있었습다(웃음). 넌

크리스천들이 스스럼없이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그러다 접촉점을 찾아서 마음이 열리면 친구가 됩니다.

친해지고 나면, 그들은 '왜 말레이시아에 왔는지' 묻습니다. 처음에는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비즈니스가 좋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한 번은 '너를 만나러 왔어'라고 대답했더니 놀라면서도 호기심을 갖더군요. 그 이후 '나도 너 만한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네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 왔다'고 말해주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깊이 담아둡니다. 그렇게 조금씩 던지면서, 전도집회나 캠프에 초청하기 전 복음을 들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지요. 물론 화교 젊은이들에게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말레이시아에서 케이팝이 그렇게 인기 좋은가요? 한국에서는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팝송을 즐겨 듣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을 걸고 싶어했던 심리랄까요. 예전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며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TV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다 보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이곳 사람들도 다 압니다.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에 그런 분위기가 퍼져 있습니다.

저희 사역에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주 타겟이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카페는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전 세계적으로 할리우드, 맥도날드, 나이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좋아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문화로 접근하면 좀 더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무슬림과 화교들이 한국인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접촉하기도 정말 쉽습니다. 한국적인 이벤트를 열면 우호적이고 친밀감을 갖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직업이 있기 때문에, 훨씬 깊이있게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정확한 소명을 확인한 다음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선교사로 갔다가 상황이 힘들어져 비즈니스 선교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성공 확률도 낮고 집중도도 떨어집니다. 자칫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선교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목회적 부르심을 받았는데 비즈니스 선교를 한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BAM)란?

비즈니스 선교는 세계적으로 선교의 흐름 가운데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특히 한국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한국선교계에 BAM이 이슈화 되면서 급속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열린 IBA 주최 '제8회 BAM 컨퍼런스'에는 무려 1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일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 선교계를 통해 이 분야에 큰 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각 교회에서 BAM을 좀 더 이해하고 동역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교회가 한 도시나 하나의 캠퍼스를 입양하고, 파송/투자/후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용 기자



현지 운영 중인 기숙사에서 학생들에게 세족식을 해 주는 모습 ©선교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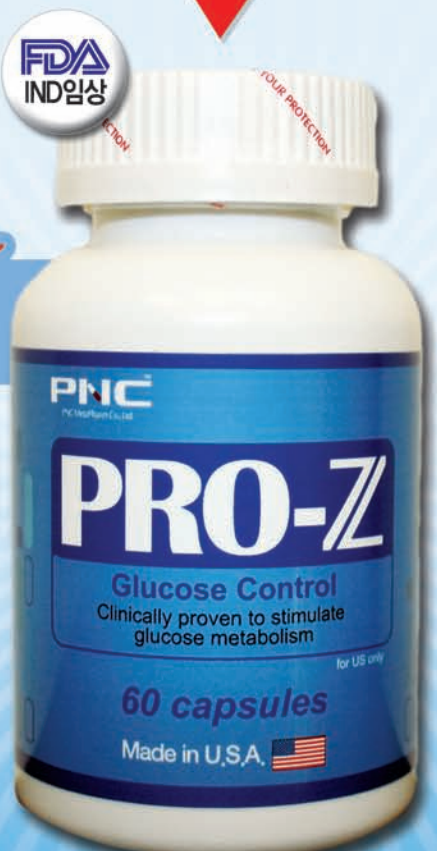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100% 천연성분

프로지(PRO-Z)를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에서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를 가능케 해 당뇨병에서 해방됩니다. 프로지(PRO-Z)는 근육세포 내에 당 대사를 거부하는 근본원인을 개선하여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정부 연방 병원인 US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이상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 ✓ 한국 30만명 판매
- ✓ 미국 출시 기념 SALE

Special Price
1병 \$76 3병 \$200 6병 \$372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3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SONATA PREMIERE EVENT

SONATA PREMIERE EVENT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Puente Hills Hyundai

소나타를 만나는 특별한 기회! 지금 푸엔테 힐스 현대에서 확인하세요!



2015 SONATA SE BASE **\$888** +TAX **36 Mon.**
MSRP: \$22,085. 36 month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2015 ALL NEW GENESIS SEDAN **\$428** +TAX **36 Mon.**

MSRP: \$55955 / SELL : \$50428 LEASE DUE AT SIGNING \$6,275
12,000 MILES PER YEAR VOC \$1000, LEASE \$500.
BOOST UP CASH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SAVE UP TO **\$15,000**

2013 NEW EQUUS SIGNATURE (DEMO)
PURCHASE FOR AS LOW AS **\$45,170** +FEES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

